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망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음 5월 13일) 제20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무더위 속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전북도가 2019년 국가예산 주요 중점 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현재 기재부 1차심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시점에서 지휘부 총력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5일,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기재부 사회예산·복지예산심의관, 문화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6개 주요 핵심 예산 심의관, 과장을 만나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2019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5월말 기준으로 군산 현대중공업과 GM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전북지역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0.6% 상승(전국평균 0.4%), 고용률은 △0.8% 감소(전국평균 △0.2% 감소) 하는 등 도내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발표됨에 따라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도내 지역경제인 농생명 분야, 여행체험 분야 등 지속성장 가능한 성장동력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기재부 예산심의관 등 방문

도내 현안 내년 예산 반영 건의

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심과 재정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다.

먼저 기재부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을 방문하여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 전라도 3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등 11개 핵심사업 국비 168억원,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원 반영,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정소 신설' 사업비 50억원, 2020년까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새만금 상류유역 하수관로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9년 국비 637억원 전액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이어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 박창환 복지예산과장, 이주현 연금보건과장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취업자의 안정적 고용 및 소득 보장, 사후관리 등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설립' 시범 사업비 20억원,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40억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재부 이병연 문화예산과장을 방문하여 국가차원의 지역화 진흥을 위하여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연구용역비로 5억원 반영, '동화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232억원 타당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조인철 농림해양예산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 전북 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포츠 농생명 벨리 조성 사업'의 핵심사업인, '중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5억원,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설계비로 15억원,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충'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국비 40억원 반영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부두시설 규모확대 등 국비 1,000억원, 전·남북 지역 노령산맥권 5개 시·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연계 활용한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국비 6억원의 반영 필요성을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도, 시군, 정칙권 등과 함께 삼위일체의 국가예산 공조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하여 2019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무더위를 식혀주는 편백나무숲



장마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온 25일 전주시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34도를 웃돌며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학술림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편백나무 숲 그늘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군산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되다

시, 문화재 등록 추진키로... 부잔교 등 핵심시설·건축물

군산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간직하고 있는 구도심 일원이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로 등록된다.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 15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또한 공간 내의 뜬다리 부두(부잔교), 호안(항만 석축구조물), 철도와 구 호남제분주식회사 창고, 경기와 학약품상사 저장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개별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역사문화자원 재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산 내항의 경관을 보존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 '구 군산세관 본관', 일제강점기 경제·상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및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최초의 면(面)단위 등록된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문화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등록 예고된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은 30일간의 예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산=김정중 기자

전주시, 폭염 종합대책 가동

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 대응

전북도는 25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한 가축(가금류, 돼지)을 중심으로 노후 축사에 환풍기, 제빙기, 자가발전기 등을 지원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집중 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9월까지 가축재해예방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25일 도내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예상되는 등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기온(23.6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폭염대응 재난상황실 운영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로수, 녹지,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정비 ▲먹는 물, 식중독 대비 등 건강관리 대책 ▲콜서비스, 그늘막쉼터, 무더위 쉼터 등 운영체계를 점검한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올해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폭염일수도 평년의 10.5일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8년 폭염대책 종합대책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홍철 기자

"비브리오패혈증균 조심하세요" ... 올해 전북도내서 첫 검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올해는 3월 여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된 데 이어 인천에서 올 들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첫 검출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도내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지난 18일 채취한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호염성세균이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해수, 갯벌, 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되며 간질환 환자, 면역결핍 환자 등 고위험군이 패혈증으로 발병한 경우 치사율이 40~5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한 어패류의 보관은 5℃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가급적이면 85℃ 이상으로 가열처리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어패류를 요리할 칼, 도마 등은 소독 한 후 사용하고 피부에 난 상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김진성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